한국불교문인협회 주최 화성문화유산 학술대회

화성시 등 후원… 종합토론 진행

원효의 화쟁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김재엽)는 11월 2일 라비돌리조텔 대연회장에서 '제3회 화성문화유산과 한반도 평화통일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학술발표회는 화성시와 화성문화원에서 후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갈등, 대화, 평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의 '원효의 화쟁사상과 평화통일',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의 '한반도 통일 정책 환경과 대북정책 과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2부 종합토론에는 10명의 패널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패널로는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한성자 동국대 연구교수, 오대혁 서울교대 외래교수, 김성순 한국전통문화대 강사, 우호철 前화성문화원장, 이재범 前 경기대 총장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실크로드 조사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린다

한국미술사硏, 14일 國博서

중국 수교 전인 1989년 문명대, 조영록, 목정배 등은 조사단을 구성하고 35일 간 한국 최초 실크로드 조사를 떠났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2월 14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실크로드 학술조사 30주년을 기념해 '골굴석굴과 실크로드 석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의 '석굴 문화 교류 연구 의의와 골굴석굴과 돈황 285굴의 석굴' 기조 강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주제 발표로는 손영문 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의 '병령사석굴과 골굴석굴', 고승희 중앙승가대 교수의 '베제크릭석굴과 골굴석굴', 심주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행정관의 '키질석굴과 골굴석굴'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불교가 꿈꾸는 이상사회는

불교평론 20주년 특집호 '불교, 이상사회 꿈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부터 삶 · 가정 · 행복까지 불교적 이상향 대해 고찰해 "수행으로 공동체 형성하고 세계 영향 주는 게 곧 평화"

종교나 철학사상에는 바라마지 않는 이상향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상의 나라를 꿈꾼다. 그렇다면 불교가 꿈꾸는 이상사회는 무엇일까.

불교계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은 창간 20주년 특집호로 발간된 통권 80호에서 불교가 꿈꾸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고찰했다.

'불교, 이상사회를 꿈꾸다'를 특집으로 다룬 〈불교평론〉은 세계평화 · 국가 · 경제 · 노동 · 환경 · 성평등 · 가정 · 삶 등 15개 분야에서의 불교적 이상사회를 살폈다.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는 '불교가 꿈꾸는 세계평화'에서 "개인 수행이 완성돼 청정행의 공동체를 수립하고 그것이 국내외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면 좋다"면서 "그것이 불교식 평화추구법"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적 이상국가에 대해서는 윤세원 인천대 명예교수가 다뤘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불교도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세속의 이상사회는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종교의 최고 가치인 깨달음의 추구와 이에 파생되는 결과로서 자비실천이 순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된 사회구조와 윤리관이 확립된 사회"라며 "이는 오계가 보편적 윤리규범으로 실천되는 도덕적 국가사회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붓다의 좋은 노동을 이야기한 유승무 교수의 글도 눈길을 끈다. 수행을 노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붓다의 인정투쟁을 사례로든 유 교수는 "붓다의 실험은 좋은 노동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면서 "사회의 각 세력이 각자의 이익추구를 배제하고 좋은 노동을 실현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공생 · 협력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환경에 대해 고찰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서둘러 살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불자에게 익숙한 연기 실상과 욕망의 무상함의 가치는 시대를 넘어 온갖 환경파괴와 생태 교란이 빚어지고 있는 인류세에 더욱 빛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불교평론〉 80호에는 △월인석보와 훈민정음의 상생관계(정진원) △민중의 삶 공유한 불교소설 두 편(유한근) △고형곤-철학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선(신규탁) 등의 다양한 논단과 연재도 함께 수록됐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권두언에서 "불교가 주창하는 행복, 추구하는 방법은 무명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역류의 길'"이라면서 "부처님이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더 큰 원력으로 세상을 향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질지를 설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원력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라면서 "그 길을 함께 가려는 사람에게 〈불교평론〉은 기꺼이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 · 윤장대 '국보' 승격

문화재청 2일 지정 공고 '공덕신앙' 내포된 윤장대 유일 경장건축 가치 높아


국보로 승격된 용문사 대장전 전경.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 있는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보물 제684호 윤장대를 통합해 한 건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예고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은 총 24건으로, 예천 용문사 대장전이 국보로 승격되며 지난 2011년 '완주 화암사 극락전' 이후 8년 만에 다시 국보 건축물이 탄생하게 됐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예천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대 두운선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초암을 짓고 정진한데서부터 비롯됐으며, 후삼국 쟁탈기에 왕건과 관계를 맺으며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 명종 3년(1173년) 국난이었던 김보당의 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응 선사가 발원하고 조성한 것으로, 고대 건축물로는 매우 드물게 발원자와 건립시기, 건립목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후 대장전과 윤장대는 여러 차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동(오른쪽) 윤장대에서 확인된 '천계오년(天啓午年, 1625)' 묵서명과 건축 양식으로 미뤄볼 때 17세기에 수리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전각을 의미하지만,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經藏)이면서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는 것과 같다는 공덕신앙'을 상징하는 성보이기도 하다.

두 성보의 국보 승격 이유에 대해 문화재위원회는 "윤장대는 불교 경전신앙의 한 파생 형태로 동아시아에서도 그 사례가 흔치않고 국내 유일이라는 절대적 희소성과 상징성에서도 국보로 승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미얀마 불교미술 모든 것 살핀다

부산博 13일 대강당서… 발굴 성과 발표도

미얀마 불교미술을 통해 미얀마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소장 강희정)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미얀마의 불교미술 특별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으로 부산박물관이 개최한 국제교류전시회 '미얀마의 불교미술'과 연계해 미얀마의 전통과 문화를 짚어보고자 기획됐으며,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미얀마 각 지방과 왕조의 다채로운 불교미술과 특징,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코이카(KOICA)와 한국문화재재단이 진행 중인 문화유산 ODA사업 중 미얀마 바간 파야똔주 사원 발굴 조사 성과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강희정 서강대 교수가 '미얀마 불교조각의 기원과 전개' 발표를 시작으로 △바간 파야똔주 사원 주변 발굴조사(전범환 · 한국문화재재단)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연구(주경미 · 충남대) △바간 시대 불전미술(하정민 · 서울대) △미얀마 꼰바웅 왕조기 빠러바익(Parabaik)의 수미산도 재현과 특징(김미소 · 서강대)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논평자로는 양은경(부산대), 최정혜(부산근대역사관), 차윤정(불국사박물관), 고정은(제주대), 김미경(문화재청) 등이 참여한다.

부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얀마 불교미술의 전통을 확인하고 그 특수성과 독자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향후 미얀마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수리 기술 역량 강화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법률 개정 · 공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통기술의 보존 · 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12월 3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해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통기술의 보존 · 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춰 비축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교양교육으로 종교교육 역할은

종교교육학회 등 13일 리베르타스 심포지엄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와 연세대 교양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교양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 백양누리 IBK기업은행홀에서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교 등 각 종교의 종교교육이 교양교육으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김은영 동국대 교수는 '불교계 종립대학의 종교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고시용 원광대 교수는 '교양교육으로서 원불교의 종교교육'을, 임민균 가톨릭대 교수는 '가톨릭 대학의 종교교양교육 현황과 과제'를, 우미리 협성대 교수는 '브리꼴레르적 기독인을 위한 기독교교양교육'을 각각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